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6 Vol. 8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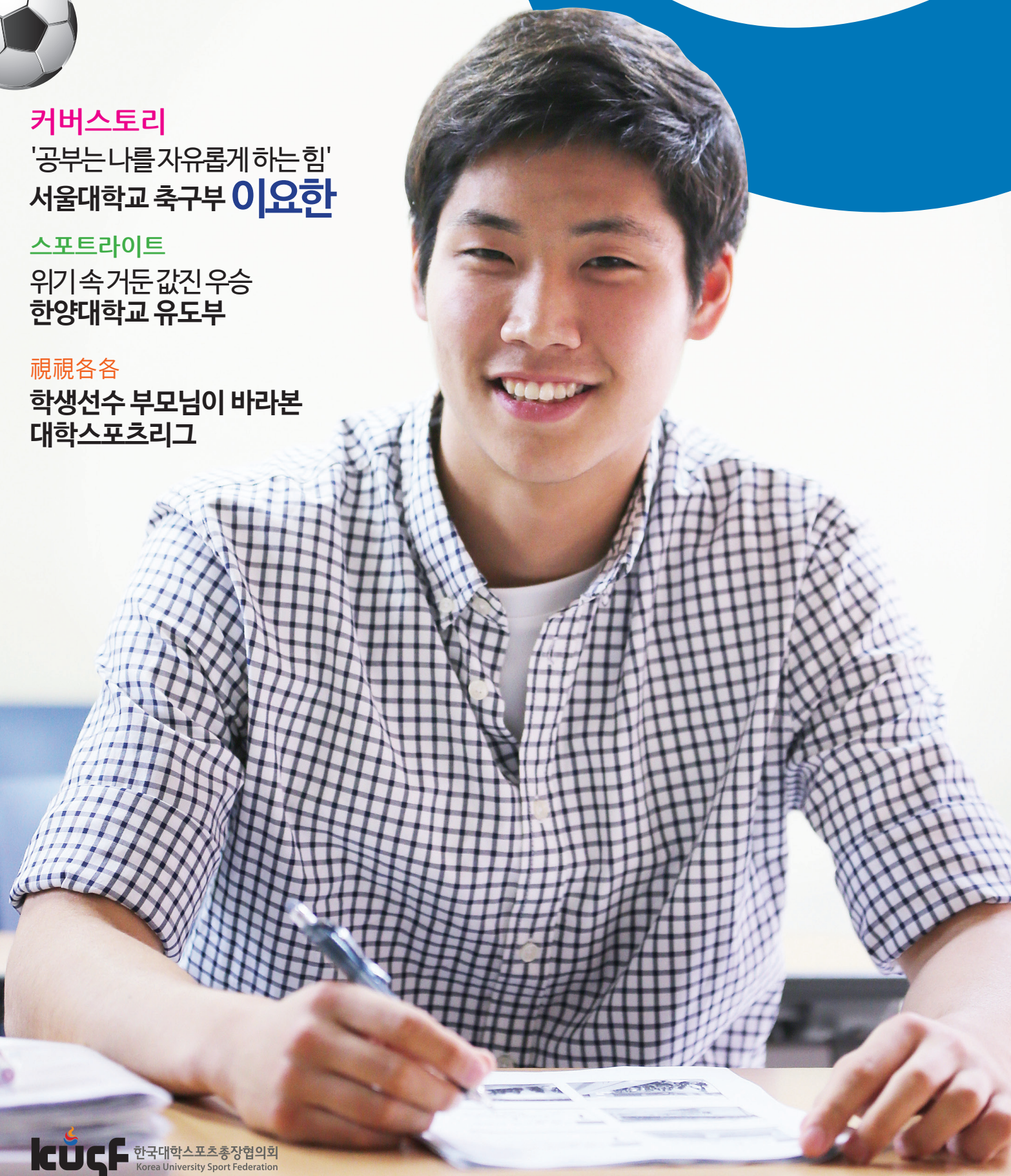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
서울대학교 축구부 **이요한**

스포츠라이트

위기 속 거둔 값진 우승
한양대학교 유도부

視視各各

학생선수 부모님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리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시각장애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팀은 역도, 축구(B1, B2/B3), 체스, 테니스, 볼링, 쇼다운, 육상, 골볼,
수영, 유도 총 9개 종목에서 메달 29개 (금 9, 은 11, 동 9)로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빛낸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를 소개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손원진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골볼 선수



원)황태구 우)서보성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축구B1 골키퍼

*선수들의 눈이 되어주는 축구B1 골키퍼는 비장애인입니다.



Contents

04



커버스토리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
서울대 축구부 이요한

09



스포츠라이트

위기 속 거둔 값진 우승
한양대학교 유도부

11



포토타임

배구
농구 질풍노도의 졸업반 선수들

대학리그소식

제4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미리보기

14

대학농구 POWER 랭킹!

16

2015 전국대학배구 기상도

18

제70회 연맹회장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산

20

페이스메이커

‘男女老小’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21

동아리 열전

대학스포츠에 미친 사람들 - M.U.S.T

23

視視各各

학생선수의 부모님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리그

25

멘토를 만나다

스포츠 심리상담사 이현영 박사

27

숫자로 보는 스포츠

1부터 10까지 숫자로 보는 2015 전반기 대학스포츠

29

KUSF NEWS

31

취재 후일담

32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 서울대 축구부

이요한



지난해 말, 한 축구선수의 이름이 스포츠팬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 주인공은 광문고 축구부 소속의 학생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전형에 합격한 이요한이다. 그는 호나우지뉴·홍명보의 플레이를 보면서 최고의 축구선수라는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그는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공부를 유일한 대안이자 돌파구로 삼았다. 3년이 지난 현재, 갖은 노력 끝에 모두가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되었다. 신입생으로서 들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선배들도 못 말리는 학구열

대학교에 입학한 지 약 2개월. 서울대의 이름을 형상화한 정문부터 수업에 제출해야 할 과제까지, 모든 것이 새로울 시기이다. “공부도 중요시하면서 U리그도 나가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최고의 학교인 만큼 배움의 터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라는 그가 신입생으로서 대학교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대학교 때는 편히 학교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악을 쓰고 공부를 해서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랑 운동량은 비슷하고 과제로 인해 공부량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라며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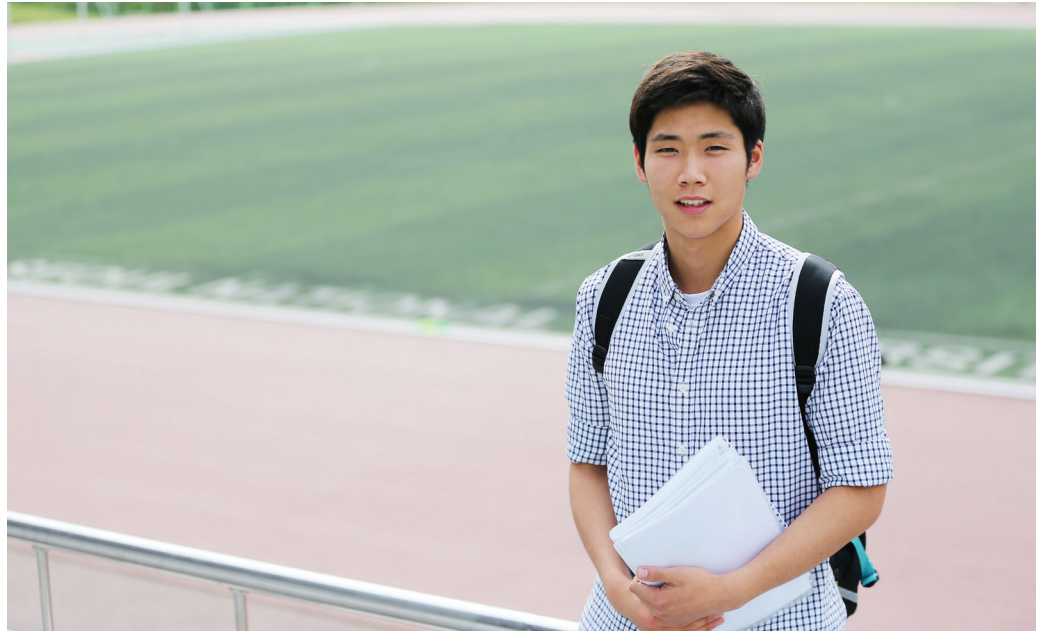
학 전 생각했던 대학생들과 큰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맞닥뜨린 중간고사 또한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다 보니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준비해서 외울 부분은 외워서 시험을 봤는데 잘못 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라며 엄살 아닌 엄살을 피웠다.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그에게 선배들은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선배들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면 수강신청부터 시작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조언들까지 친절하게 답해주고 제가 나아갈 모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라며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먼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선배들의 특별한(?) 조언도 있었다.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은 건지 몰라도 ‘대학에 막 입학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고 다들 학점도 안 좋게 나왔으니 좀 놀아도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이요한을 보고 선배들이 꺼낸 말이었다. 고마운 선배들이지만 그가 이 조언만큼은 곧 이곧대로 들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가야죠.”

U리그, 팀을 위해서 뛰겠다

그의 삶을 얘기함에 있어서 축구를 빠뜨릴 수 없다. 이요한은 공부로 인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상으로 인해 국가대표를 향한 꿈은 한번 꺾였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현재 최선을 다해 다시 노력해 볼 생각이다. 그가 속한 서울대 축구부는 전국 단위 토너먼트 대회에만 출전하다 2009년부터 대학축구리그인 U리그에도 출전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 경기를 치르는 터라 다른 운동부들은 주 3회씩 훈련을 소화하지만 축구부는 주 5회씩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물론 수업을 다 듣고 난 뒤 오후 5시부터 운동을 시작한다. “축제도 즐기고 싶었지만 U리그 준비 때문에 슬쩍 지나가면서 밖에 볼 수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그였다. 인터뷰 당일에도 새벽에 훈련을 하고 수업을 들은 뒤 인터뷰에 응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수비수인 이요한은 고려대 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지난 5월 15일 서울 열린 사이버대 전에서는 첫 선발출전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대학축구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서 어떻게 상대편 선수들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부상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라면서 “경기를 뛰고 난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U리그를 뛴 소감을 말했다. 올 시즌 서울대는 전반기까지 3승이 목표다. 서울대는 지난 5월 8일 세종대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일찌감치 1승을 거뒀다. 최근 3년간 최고 성적이 1승에 불과한 서울대로서 목표 달성이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는 좀 더 경기 출전에 욕심을 낼 법도 하지만 결코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선수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서 교체로 주로 뛰고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커요. 하지만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하게 되면 팀이 조직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빨리 완치해서 팀에 조직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나에게 공부는 000이다

지난해 12월, 이요한의 합격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인터뷰한 내용 중 한 마디가 기사를 읽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바로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축구로 풀고, 운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 풀었어요.”라는 말이었다. 공부랑 운동을 같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질문을 꺼내자 그는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였어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코치님께서 (지시한 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다 보면) 혼이 날 때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반면에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게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난히 운동이 되지 않았던 날에는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동시에 힘들지만 공부는 펜을 움직이면서 정신적으로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였어요.”라고 설명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요한은 또 하나의 장점을 말했다. “운동만 하는 선수는 운동이 가장 주 무기인데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하면 운동을 하더라도 압박감을 받을 필요 없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부상을 당하여 공부를 하게 됐고 서울대에 입학하여 결국은 부상을 극복해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그였기에 더욱 와 닿았던 의견이었다. 이요한에게 공부는 학생선수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요한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여러 감독이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경쟁이 있었던 만큼 장래가 기대되던 선수였다. 그러던 도중 그는 중학년 3학년 말 무렵에 축구선수로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만다.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축구를 못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직접 패닉이라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요한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부상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울대에 와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라며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를 목표로 한 후로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투자했다. 수업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없다. “운동선수다 보니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에 가는데 전 수업시간이 전부였으니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이요한의 말이다. 그는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도 감독이 따로 내어준 방에서 자기 전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많은 이들이 운동에만 전념하다 공부를 하게 된 그를 도와주었다. 심리상담가인 어머니는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면을 어루만져주었다. 주변의 많은 지도자들도 “축구 말고도 길은 많으니,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로 인해서 이요한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얼떨떨했다. “원래 발표하기로 한 날짜 하루 전에 발표가 난 거예요. 수험번호를 치고 제 이름을 나왔는데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합격증을 인쇄해 본 다음에야 확신이 들었어요.” 합격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던 사람은 어머니였다.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인사를 돌릴 때에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나니 기쁘기도 했지만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던 어머니에 대한 한마디를 부탁하자 이요한은 그동안의 고마움이 생각나는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원자가 되어주어서 고맙고 몸도 안 좋는데 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이 담긴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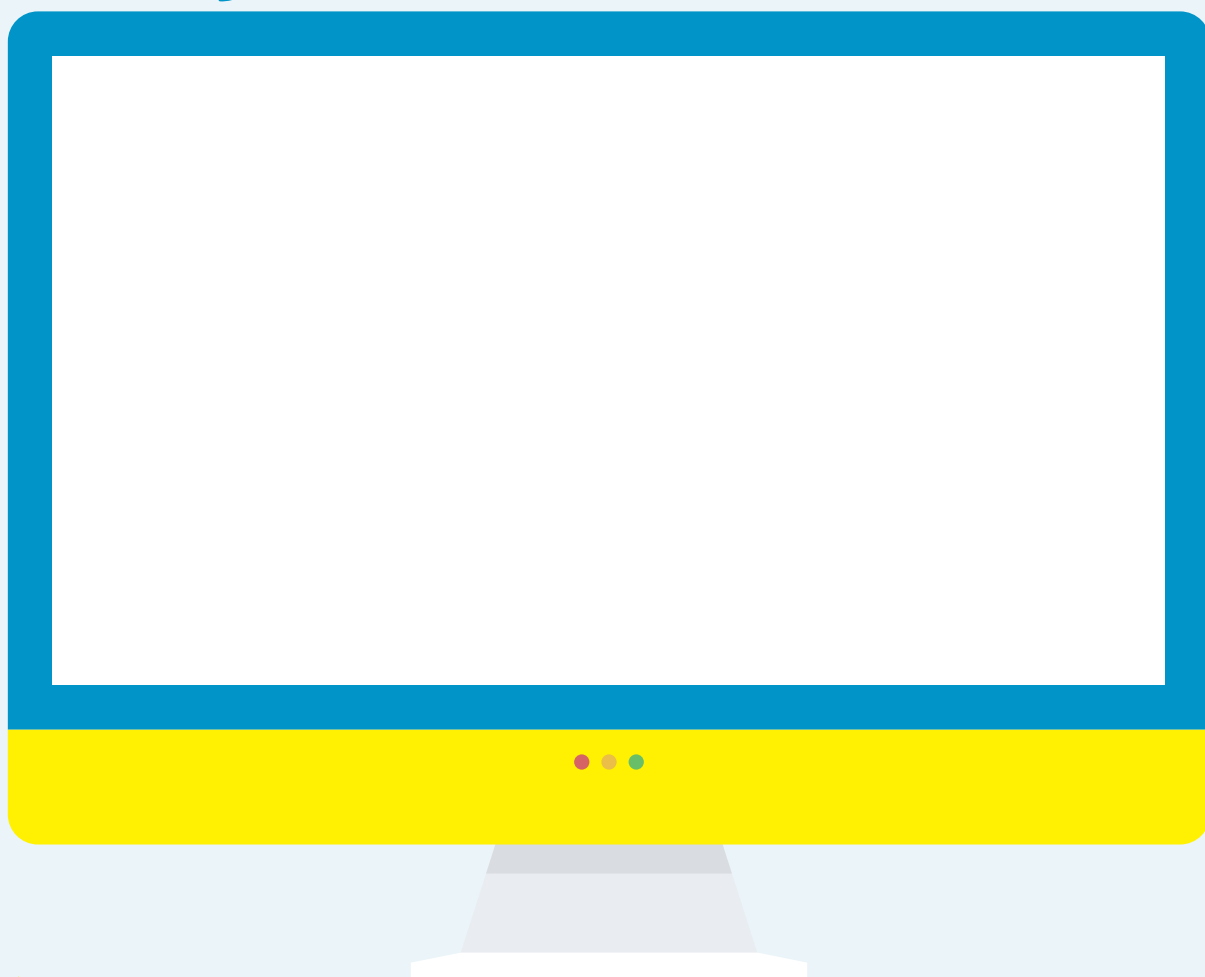
“교육자와 지도자, 또는 스포츠 심리를 연구해 스포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축구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처럼 이요한이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본다.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

서울대 축구부

이요한



위기 속 거둔 값진 우승

한양대학교 유도부

유도 명문 한양대학교 유도부가 제65회 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에서 6년 만에 라이벌 한국체육대학교를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팀 해체와 부족한 재정적 지원 등의 많은 어려움 속 가운데 거둔 우승이기에 그 감동의 여운은 더욱 진하게 남았다. 하나로 똬똬 뭉쳐 더욱 큰 결실을 일궈내는 한양대학교 유도부를 만나봤다.



위기 속 거둔 값진 우승

2년 전 한양대학교 유도부는 학교 재정난의 이유로 해체의 위기에 처했다. 많은 이들의 반대 끝에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매해 선발되는 신입생 수와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줄어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양대 유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권영우 감독 역시 “매년 신입생을 두 명씩밖에 받지 못해 정원이 10명뿐이다. 한해 용인대가 100명, 한체대가 7~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수 인원이 매우 적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로 인해 선수단의 사기가 떨어질 법도 하지만 한양대 유도부는 그 든든한

풍채만큼이나 다부진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권 감독은 “수적인 부분은 취약하지만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여타 대회에서 더욱 많은 경기를 뛰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수 한명 한명의 지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선수들 역시 인원은 적지만 하나로 똬똬 뭉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운동하고 있다. 선배가 자신의 경험들을 후배에게 잘 전달해 주다 보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신입생들의 기량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답을 전했다.

그 덕분일까. 한양대 유도부는 지난 제65회 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에서 6년 만에 라이벌 한국체육대학교를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매년 많은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

왔지만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던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거둔 우승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사실 한양대 유도부는 대학리그 내 가장 큰 대회인 춘계 연맹전을 위해 지난겨울 피땀을 흘리며 훈련에 힘썼다. 권 감독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선수들의 열망이 컸고 그 열망이 경기에서 발휘되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 철저히 파악한 후 경기에 임한 것이 유효했다.”라며 지난 우승의 순간을 회상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준비 단계

평소 권영우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선수이기 이전에 대학생이자 성인인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음을 깨우치길 바라는 것이다.

권 감독은 “수업도 빠짐없이 들어가

학점도 잘 받고, 인성도 잘 갖추었

으면 좋겠다.”며 “사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 준비단계인 대학생에서 한 명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본인의 지도 철학을 밝혔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을 더욱 넓게 보는 것이다. 10여년의 국가대표 생활을 거친 권 감독은 “승부에만 집중하다보면 살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그 나이에 느끼고 경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며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성과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선수들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

춘계연맹전은 대학 유도부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대회이다. 그리고 한양대는 이번 대회에서 총 3개의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다. 그 주인공들은 정진형(+100KG 체급, 2학년), 임주용(86KG 체급, 4학년), 김현철(-100KG 체급, 4학년)이다. 임주용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춘계연맹전 3번 출전에 3번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주용에게는 상대방과 게임의 승부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이번에도 무조건 1등을 해야한다는 것이 유일한 부담감이었다. 그만큼 자신있었다. 곧 다가올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해 임주용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우승도 해보고 대학교 동체급에서는 1등 선수일지 몰라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려면 선발전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하는데 선발전에는 대학선수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범 선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춘계연맹전 단체전은 결승전이 3:3까지 가는 팽팽한 승부였다. 원래의 전략은 단체전 출전 7체급 중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정진형, 임주용, 김현철이 승점을 따내고 나머지 한 체급에서만 더 이기면 4:3으로 우승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체급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두 체급의 선수가 지고 말았다. 선수들은 승리를 예상했던 두 체급의 선수가 패하면서 우승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 66KG체급 성창렬 선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판승으로 승리하면서 4:3으로 극적인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주장 김현철은 “원래 저희는 한체대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체대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우리팀을 결승 상대팀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무시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고서 결국 마지막에 한 판으로 이겨서 정말 축제 분위였어요.”라며 당시를 기쁨을 회상했다.

유도만의 매력!

정진형이 대답한 유도만의 매력의 ‘시합의 재미’이다. “시합 때 나서서 상대방과의 대결에 열중하다 보면 재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시합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유도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주용은 유도의 ‘반전 매력’을 이야기했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매치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다른 선수보다 작고 힘이 약하다고 해도 기술로서 상대를 매칠 수 있다는 게 유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현철은 “유도가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엄청 힘들게 훈련하고 시합을 하고 나서 도복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엄청 개운해지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라며 유도의 매력을 전했다.

‘하나로 똘똘 뭉친 가족같은 분위기’. 그것이 한양대 유도부의 우승 비결이다. 김현철은 “2년 전 유도부 폐지 위기에도 코치 선생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운동에만 신경 쓰라고 계속 격려해주셔서 지장을 받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했다. 어떤 위기에도 한양대 유도부 선수들은 오직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은 비단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선수들과 감독, 코치 모두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양대 유도부는 대학 유도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글/김보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150504 홍익대 vs 명지대

홍익대 배구부 선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박종찬 감독은 1년만에 홍익대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아무래도 엄격할 때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일상에서는 친형처럼 다정다감한 박 감독만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경기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이끈 김준영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내민 박 감독, 이에 김준영은 부끄러운 듯 조심스레 본인의 주먹을 맞춥니다. 요즘 정말 잘나가는 홍익대, 괜히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150515 홍익대 vs 경기대

부동의 1위 경기대와 끊임없이 선두의 자리를 노리는 홍익대의 리턴매치 최근 기세가 좋은 양 팀이었기에 박빙의 게임이 예상되었지만 슈퍼 루키 황경민의 활약으로 경기대의 3 대 1 승!!!!!! 황경민은 최근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는 경기대 공격진 중에서도 세터 이대원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그 실력만큼이나 강한 승부욕을 지닌 선수예요, 남은 인터리그에서도 그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주세요요 ^^

phototime Volleyball



150522 경남과기대 vs 조선대

역시 배구의 파이팅은 리베로 파이팅!!!!!! 이날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코트 위를 달렸던 조선대 리베로 유도윤 선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대 배구부는 시즌 5연패를 겪으며 선수단 전원 삭발의 위기(?)에까지 놓이기도 했는데, 그가 든든히 버텨준 덕분일까요. 이날 조선대는 경남과기대를 상대로 기나긴 연패 끝에 달콤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화려한 공격을 선보일 수는 없지만 특유의 파이팅으로 코트 위 가장 빛나는 리베로의 진가를 보여준 날이었습니!



150522 경남과기대 vs 조선대

같은 날 경남과기대에는 에이스 김인혁이 제1회 아시아U-23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고 귀국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남과기대 체육관은 그를 보기 위해 달려온 여성팬들로 가득했는데, 코트 위에선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한 마리의 맹수 같지만 사진 속처럼 해맑은 미소로 여심을 녹이고 있는 김인혁 선수! 2015 시즌 신인왕을 노리는 수준급의 실력에 훈훈한 외모까지! 대학배구 여성팬분들 김인혁 선수를 주목하세요 *^^*

phototime

질풍노도의 졸업반 선수들

고려대 이동엽

동국대전에서 결정적인 위닝 페이더웨이 샷을 꽂아 넣은 이동엽
 샷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던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뜨거운 손'으로 코트 어디든지
 샷을 자유자재로 던지고 있다.
 더 이상 '이동엽은 샷이 없어'란 이야기는 듣기 힘들 것 같다.



중앙대 조의태

동국대전에서 야투 10개를 던져 10개를 모두 다 성공시키는
 괴력을 선보이며 중앙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유일한 중앙대의 졸업반 선수로서 꾸준히
 굿은일을 해나가고 있는 조의태
 중앙대의 부활의 숨은 공신이 되어가고 있다.



한양대 한상혁

위기의 한상혁... 개인 기록에서는 살아나고 있으나 팀 한양대는 여전히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저학년 선수들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이 문제, 팀의 만형이자 캡틴으로서 한상혁의 고민과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동국대 서민수

이대현이 발목 부상으로 컨디션이 들쭉날쭉 한 가운데 동국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는 바로 서민수이다. 파워포워드와 센터 자리를 가리지 않으며 골밑에서 꾸준한 투쟁심으로 리바운드를 걷어낸다. 이대현이 제 컨디션을 완전히 찾으면 더 무서운 동국대가 될 것 같다.

제4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미리보기

오는 7월 15일(수)부터 31일(금)까지 17일 동안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의 대진이 발표됐다. 리그 휴식기에 열리는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은 리그 하반기 출발점의 연장선인 동시에 U리그 왕중왕전의 판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2014년 본 대회에서 우승은 '도깨비팀'으로 불리는 선문대가, 준우승은 인천대가 차지했었다.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경희대가 이번 대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4번이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송실대가 2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67개교가 참가하는 이번 제4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을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키워드1. 미리 보는 정기전 (Feat. 죽음의 조)

9월에 열리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에 앞서 두 팀이 제46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이하 추계대회)에서 맞붙는다. 고려대, 홍익대, 연세대가 9조에 포진하면서 대진 발표와 동시에 일찌감치 '죽음의 조'로 낙점된 상황. 상위 라운드에 진출할 2팀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환상(?)의 조합이 탄생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기는 미리 보는 정기전이며, 홍익대 역시 권역 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에 9조의 모든 경기가 추계대회 빅매치로 손꼽히고 있다. 각급 대표 팀을 오가며 커리어를 쌓고 있는 고려대와 연세대 선수들 간의 포스트 정기전! 이 흥미진진한 경기를 주목해보자.

#키워드2. 광운 더비 : 광운대 VS 성균관대

7조에서는 광운대 출신 감독들의 맞대결이 기대를 모은다. 광운대 더비의 주인공은 바로 광운대와 성균관대. 오승인 감독이 이끄는 광운대와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성균관대는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강팀이다. 특히 올 시즌 첫 대회였던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불참한 광운대는 추계대회가 올해 참가하는 첫 대회다. 작년 리그 챔피언인 광운대는 시즌 종료 직후 7명을 프로팀으로 떠나보내면서 전력 손실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춘계대회 참가를 포기했지만 동계훈련에 매진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광운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리그에 등장했다. 성균관대 역시 시즌 시작과 동시에 비(非)성균관대 출신의 설기현 감독을 선임하면서 대학축구에 한 차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얼마 전까지 현역 선수였으며 2002 월드컵 영웅으로 불리는 설기현 감독의 부임은 선수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제가 됐다. OB와 YB의 본·격·대·결! 광운 더비도 꼭 봐야 할 경기로 강력 추천한다.



#키워드3. 1승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진표에서 낯선 이름이 하나 보인다. 바로 순수 아마추어 대학생들로 구성된 ‘한국교원대’다.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주축인 한국교원대는 리그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대회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1987년 축구부 창단 이래 승리를 맛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대회에서 ‘1승’을 꿈꾼다. 역대 대회 기록에서 실점이 득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훗날 선생님이 될 이 학생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평범한 학생들이지만 사비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그들의 축구 사랑은 다른 엘리트 선수들을 뛰어넘을 정도이다. 지난해 추계대회에서는 한국국제대에 11실점, 명지대에 13실점, 원광대에 8실점 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한국교원대가 이번 대회에서는 짜릿한 골 맛을 볼 수 있을까. 창단 첫 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한국교원대, 1승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학농구 POWER 랭킹!

(2015년 4월 27일 ~ 5월 23일)

5월의 베스트 팀

연세대 (4승)



경희대에게 1차전 패배를 설욕하며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리그 초반 당한 두 번의 패배 이후로 8연승 행진이다.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것이 문제지만, 그래도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연세대가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리바운드다. 연세대는 현재 50개가 넘는 평균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꼴찌인 중앙대보다는 15개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야투율이 6위로 중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득점력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유투다. 연세대학교는 경기당 11.3개의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성공률이 75%를 넘기며 리그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경기당 득점 5위, 리바운드 2위, 어시스트 11위, 스틸 18위, 블록 3위, 자유투 평균득점 1위... 열거하기도 버거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준용은 팀 내 에이스 역할을 120% 소화하고 있다. 경희대전 기록한 25리바운드는 상대 전체 리바운드와 동일한 개수일 정도. 매 경기 더블-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주장인 정성호는 경기당 3.6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성공개수 1위에 올라있으며, 성공률도 38%로 준수한 편이다. 천기범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가드진 역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다만 불안 요소도 있다.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던 실책이 최근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희대전에서도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실책을 범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다. 또 부상이 끊이지 않는다. 베스트5가 가동된 지 단 두 경기 만에 박인태가 부상을 입었다. 시합 중에 부상을 입는 상황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를 지켜보는 팀 관계자의 속은 타들어 갈 것만 같다.

5월의 위스트 팀

성균관대 (3패)



성균관대와 같이 전패를 기록하고 있던 명지대가 1승 신고에 이어 내친김에 2승까지 신고하며 현재 유일하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상명대, 조선대 등이 오랜 기간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균관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세대전에 1쿼터에 33점을 내주는 등 경기력이 저점을 찍고 있다. 조선대가 그래도 접전 양상의 경기가 여럿 있었고, 상명대가 3쿼터까지 연세대와 동점을 이끌어가는 저력을 보여준 것과 대조적이다.

이제 성균관대가 남긴 경기는 단 두 경기. 경희대전과는 전력 차가 크다고 볼 때 결국 6월 4일 상명대전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첫 승 도전은 교류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달의 경기



명지대 vs 한양대

명지대가 6연패를 끊었다. 그 제물은 올 시즌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던 한양대였다. 이 경기에서 명지대는 첫 승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역전에서 성공하며, 한양대와의 1차전에서 막판 뒷심부족으로 승리를 내주었던 기억까지 털어버렸다.

명지대는 1쿼터 중반부터 조금씩 앞서 나갔다. 한양대는 여러 선수가 득점에 가세했지만 명지대에 밀리는 양상이었다. 이에 점수 차는 3쿼터 중반, 11점 차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주저앉을 한양대가 아니었다. 추격의 선봉장은 한상혁. 한상혁은 외곽 슛 포함 12득점을 3쿼터에 몰아치며 점수 차를 좁혀갔다. 여기에 3쿼터 말미, 김기범이 이날 처음으로 외곽 슛을 성공시키며, 한양대는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승부는 4쿼터에야 결정됐다. 명지대의 에이스, 김효순의 외곽 슛이 연이어 림을 갈랐고 표경도 역시 교박교박 득점을 보냈다. 한양대는 5명이 17점을 올렸지만 명지대는 단 2명이 21점을 합작했다. 경기 스코어 65-63, 명지대의 첫 승리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명지대는 이 경기 이후 다음 경기까지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한양대는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꼭 챙겨야 했던 승리를 놓치며, 불안한 입지에 놓였다.

5월 랭킹!

1	고려대	4승	-
-	연세대	4승	-
3	경희대	3승 1패	-
-	건국대	3승 1패	↑
5	중앙대	2승 1패	↑
-	명지대	2승 1패	↑
7	동국대	2승 2패	↓
8	한양대	1승 3패	↓
-	단국대	1승 3패	↓
10	상명대	3패	-
-	성균관대	3패	-
12	조선대	4패	↓

5월의 핫 플레이어

한희원



**5월 기록 : 평균 35분 50초 출전
21.75득점 경기당 3점 슛 3.5개 성공
(성공률 45%) 5.75 리바운드**

경희대의 주득점원이 한희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 대학농구에서, 한희원은 알고도 못 막는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재기의 비결은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진출을 앞둔 4학년인 올해 서민수는 완벽히 재기에 성공했다. 팀의 주장이자 동기인 이대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꾸고 있다. 지난 시즌과는 달리 리바운드와 득점 모두 고른 활약을 보이며 매 경기 동국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감독님께서 박스아웃부터 신경 쓰라고 많이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늘려서 몸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훈련이나 시합에 들어갈 때 위치선정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공격리바운드에서는 뛰어 들어가는 리바운드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운동능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과 함께 부상을 털어버린 서민수는 잠시 잊고 있던 에이스 본능을 각성했다.

기본에 충실한 남자가 되고 싶다

서민수는 신장으로 볼 때 프로에 진출하면 3번 혹은 4번을 보게 된다. 본인의 롤모델 혹은 어떤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싶은지 물었다. “원주 동부 프로미의 윤호영 선수를 닮고 싶어요. 높이와 함께 넓은 수비범위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 플레이를 챙겨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수비부터 잘해야 풀리는 것이 농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올해 4학년으로서 팀에 도움이 되는 수비와 함께 리바운드로 감독님께서 목표하신 리그 3위에 안착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라며 팀에 대한 애정과 굵은일부터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나타냈다.

올해 동국대 서대성 감독은 리그 3위라는 목표와 함께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 연세대 혹은 경희대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동국대 팬들은 어렵지 않은 목표라 생각할 것이다. 부상을 극복한 도약으로 팀을 이끌 어갈 그가 있기 때문이다.

글/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2012년 4월 18일 동국대학교 체육관. 연세대와 경기에서 종료 1.6초를 남기고 장거리 버저비터로 승리를 안기며 스타덤에 오른 서민수. 그 해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며 대학농구리그 4강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이후 부상으로 신음하며 2년간 출장과 재활을 반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4학년인 올해 5월 22일 기준 대학농구리그 8경기 평균 9.63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동국대 골밑의 수호신으로 돌아왔다.

부상을 극복한 도약

동국대학교 서민수

2015 전국대학배구 기상도

어느덧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의
예선리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3달여간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치열한 순위싸움으로 인해 10개 대학은
울고 웃으며 냉탕, 온탕을 옮겨 다녔는데요.
예선리그를 마치고 인터리그에서
상대조의 새로운 팀과 맞붙게 될
각 팀의 날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7위

날씨 : 흐림



리그 중반 새내기들의 활약으로 2연승,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던 경남과기대의 현재 날씨는 매우 흐립니다. 최근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김인혁이 국제대회 참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팀의 조직력이 흐트러졌습니다. 특유의 강서브가 터지지 못하고 있는 데 더해 리시브와 토스 면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만 타면 엄청난 기세를 보이는 경남과기대. 하늘 위 가득 찬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인천 인하대학교

3위

날씨 : 맑음



나경복, 김성민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좌우쌍포를 보유한 인하대는 꾸준히 상위권의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최근 나경복의 부진으로 중부대에 발목이 잡혔지만 4, 5위와의 승점 차는 2점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흔들리고 있는 2위 홍익대의 승점과 단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위로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 또한 엿보입니다. 인터리그에서 경기대와 홍익대를 제압한다면 인천 인하대에는 더욱 강렬한 태양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수원 성균관대학교

4위

날씨 : 구름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성균관대학교는 아슬아슬하게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패로 고전했던 성균관대지만 김선호 코치가 감독의 자리에 오르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김병욱과 이시우, 정수용의 고른 활약으로 팀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이전의 끈끈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원 성균관대의 날씨는 차츰 맑아질 전망입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8위

날씨 : 비



많은 범실과 불안한 경기 운영으로 5연패에 빠져있던 조선대가 손태훈, 조철희의 복귀와 함께 기나긴 연패를 끊어내고 예선리그를 의미 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직 세터 조철희의 경기 감각이 완벽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장술륜, 원대만, 이기창의 공격진이 조화를 이루며 빈틈없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조선대는 우선 비바람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전 중부대학교

5위

날씨 : 맑음



에이스 지원우가 돌아온 중부대학교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상위권의 성균관대, 인하대를 차례로 제압하며 4연승을 기록. 순식간에 5위로 경풍 뒤흔었습니다. 지원우의 복귀와 함께 리듬을 되찾은 세터 김동훈이 영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며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겨진 인터리그에서도 A조의 강팀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대학배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6위

날씨 : 점차 갸



예선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홍익대를 꺾으며 흐렸던 날씨에 한줄기 햇빛이 내렸습니다. 리그 초반 주전 선수들이 자주 바뀌며 혼돈의 카오스였던 한양대, 이제야 안정 기류에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인터리그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주 공격수 '백민규 뿔새 바람'으로 다른 학교의 기류를 묶어가고 있습니다.

* * *

수원 경기대학교

1위

날씨 : 매우 맑음



예선리그를 마친 지금, 경기대학교는 8전 전승을 챙기며 '최강 경기'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 홍익대와의 승점을 5점으로 벌리며 단독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U23 대회 차출로 부재했던 정동근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수비와 빠른 공격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경기대의 떠오르는 라이징 선! 라이징 스타 황경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득점 1위까지 올라있는 황경민의 햇살로 경기대는 매우 맑음입니다.

용인 명지대학교

10위

날씨 : 먹구름



단 1승만을 챙기며 먹구름 속에 갇혀있는 명지대, 인터리그 첫 상대가 B조의 강호 성균관대이기에 탄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균과 김은우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춘추전국시대인 리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우는 블로킹 부문 1위를 사수하며 명지대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비 온 뒤 맑음이라지요. 달라질 명지대의 인터리그를 기대해봅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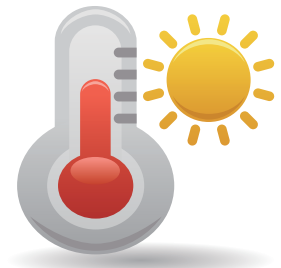
서울 홍익대학교

2위

날씨 : 장마전선



리그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던 홍익대, 장마전선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기대, 한양대전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눈물 같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대와의 원정경기에서 풀세트 끝에 패하며 홈에서의 리턴매치를 단단히 준비했지만 부상으로 빠진 '김재권 우비'를 입지 못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속수무책입니다. 장마와 동반된 리시브 태풍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제70회 연맹회장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산

경성대, 2010년 우승 이후 5년만의 정상



지난 5월 9일(토)부터 5월 17일(일)까지 목동 신월야구장에서 제70회 연맹회장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가 펼쳐졌다. 31개의 대학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는 경성대학교가 우승을, 인하대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렸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대회인 만큼 전승을 거두어야만 우승이 가능하다. 경성대가 우승을 거두기 위해 분투했던 다섯 경기를 차례차례 살펴보자.

1회전

vs 계명대 : 9-1

선발 김명신의 호투를 앞세워 손쉽게 승리를 거둔 경기였다. 김명신은 60이닝 20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3안타만을 허용했고 사사구는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아웃카운트를 잡은 17타자 중 절반에 가까운 8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훌륭한 투구내용으로 타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타자들 또한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문순찬이 4타수 3안타 4타점을 올리며 경성대의 콜드게임 승리를 이끌었다.

16강전

vs 홍익대 : 2-1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이 두 팀은 지난 춘계대회 때 두 번 맞붙었고 두 경기 모두 홍익대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2대 1이라는 점수에서도 알 수 있듯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그 전날 훌륭한 피칭을 보인 김명신은 하루 만에 다시 등판했고 심지어 완투승을 거두었다. 김명신은 90이닝 동안 단 한 점만을 내주는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했다. 홍익대 선발 이연주가 3.1이닝 2실점을 한 이후 에이스 김재영이 등판해 남은 이닝 동안 경성대에게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홍익대 타선 또한 김명신에게 단단히 틀어 막혀 점수를 뽑지 못했다. 경성대 타선에선 전 경기에 이어 문순찬이 또다시 4타수 3안타를 쳐냈고 김종성과 김민준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다.

8강전

vs 고려대 : 3-1

이번에는 또 다른 에이스 투수의 등장이었다. 경성대의 선발 투수가 또 한 번 완투승을 거두었다. 선발 공수빈은 90이닝 동안 단 6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고려대의 타선을 꽂꽂 묶었다. 고려대 선발 김주한 또한 70이닝 5피안타 6탈삼진으로 호투를 했지만 5개의 사사구와 두 번의 폭투, 그리고 팀의 실책으로 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되었다. 경성대는 5개의 안타만을 쳐냈지만 득점권에서 타자들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면서 3점을 추가, 4강 티켓을 손에 쥐었다.

4강전

vs 단국대 : 7-5

3경기 내내 1실점만을 해온 경성대는 단국대를 만나서는 5실점으로 나름 고전(?)했다. 선취점은 단국대의 몫이었다. 이날 멀티히트를 기록한 이용석, 3안타를 쳐낸 이재현이 득점권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며 앞서나갔다. 하지만 경성대가 바로 동점을 만든 뒤 이어 역전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갔다. 경성대 선발 김명신은 또 다시 완투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만 두 번의 완투승을 챙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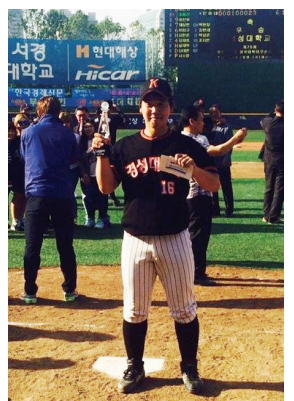
결승전

vs 인하대 : 10-6

선취점은 경성대가 가져갔다. 3-0으로 앞서 가던 경성대는 김민준의 3루타 이후 인하대 투수 임서준의 폭투로 1점을 더 달아났다. 인하대가 바로 1점을 만회했지만, 경성대는 문순찬이 출루한 뒤 김종성이 투런 홈런을, 이태양이 또 한 번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단숨에 7점 차로 격차를 벌리고 다시 2점을 추가해 완전히 승기를 가져갔다. 인하대는 끝까지 추격하며 5점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성대 선발 공수빈은 8.20이닝을 소화하며 승리투수가 되었다.

** AWARDS

연이은 완투로 경성대의 우승을 이끈 일등공신, 투수 김명신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공수빈이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지난 춘계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던 인하대 투수 임서준은 감투상을 수상했고 인하대 4번 타자 채상현은 지난 대회에 이어 또다시 타격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 경성대 김종성이 수훈상을, 연세대 김호은이 타점상과 홈런상을 동시에 받았고 고려대 천재환이 도루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투수 김명신



‘男女老小’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5000만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인 배드민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배드민턴의 기원은?

배드민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인도의 ‘푸나’라는 게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20년경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인들이 푸나 게임을 배워 영국으로 돌아와 경기화했다고 한다. 당시 영국의 그루스타주의 뷔포오드경을 중심으로 보급된 것이 배드민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 배드민턴의 특징은?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배드민턴은 코트에 설치된 네트를 중앙에 두고 라켓으로 배드민턴용 공인 셔틀콕(shuttlecock)을 쳐서 네트를 넘기며 점수를 겨루는 스포츠이다. 배드민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단순해 보이지만, 순간 집중하지 않고 방심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약 5g의 무게를 가진 셔틀콕(shuttlecock)이 경기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배드민턴의 장점은?

1. 배드민턴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시켜 준다.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 심장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신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를 강하게 해주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





2. 칼로리 소모가 많아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체중 70kg 성인이 1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쳤다면 약 600~650kcal 가 소모되므로 다른 유산소운동에 비해 칼로리 소모량이 많다.

3. 장소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배드민턴처럼 라켓을 사용하여 경기를 하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코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좁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실외에서 즐길 수 있고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날씨나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배드민턴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배드민턴을 하고 싶지만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각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를 추천한다. 지난 5월 16일 관악중학교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각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들의 정기 교류전이 열렸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대회에서 대학생 동아리 회장을 통해 배드민턴의 동아리만의 매력을 알아보자.



고려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KUBC)
임하제 회장

배드민턴 동아리의 가장 큰 매력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즐겁고 더욱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전국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져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스누민턴)
지서진 회장

배드민턴 동아리를 하게되면 여러 대회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쉬우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information

배드민턴 선수가 알려주는
초보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1. 준비운동은 꼭 10분 이상 하자!

배드민턴은 전신운동이므로 경기 시작 전 어깨, 허리, 무릎 등 각 신체 부위를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

2. 초보자들은 라켓의 그립(Grip) 잡는 법을 제대로 배우자!

라켓의 손잡이 부분을 그립(Grip)이라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대충 배우고 넘어가거나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잘못 잡으면 손목이 아프고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므로 제대로 배워서 익히자.

3. 중간중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라!

배드민턴은 몸의 전체 근육을 사용한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기할 때는 중간중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칼로리 소모가 많으므로 물이나 이온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말자!



대학스포츠에 미친 사람들 - M.U.S.T

스포츠마케팅은 소위 '죽은 지식'이라 불리는 책 속에만 있는 학문이 아니다. 직접 현장을 만들고 기획하며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동아리가 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바로 <대학스포츠에 미친 사람들의 마을 Maniac University Sports Town>이다. 작년에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지만 매달 영상콘텐츠 제작, 외국인 풋살대회, 2014 스포츠 잡 페어 참가 등을 직접 기획 및 실행하며 대학스포츠를 산업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그들의 마을을 소개해 줄 허영진 총장 & 배성은 부총장과 함께 M.U.S.T(이하 머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MUST 주최
제1회 스포츠산업
토크 콘서트

대학스포츠의 산업화를 목표로 탄생한 동아리

대학스포츠는 프로스포츠를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스포츠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대학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오지만 엘리트 스포츠, 즉 선수들을 위한 홍보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실무와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차 스포츠마케팅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작년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마케팅 연합동아리 머스트가 탄생했다.

짧은 역사가 단점? 앞으로 만들어갈 경험이 곧 우리의 색깔이다

SMR, 스마트 등 다른 학술동아리에 비

해 짧은 역사를 가진 머스트. 동아리를 홍보할 때 인지도 및 지원을 등에서 불리한 점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허영진 총장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상을 머스트 친구들과 함께 실무 경험으로 이뤄낼 수 있기에 틀 없는 짧은 역사가 장점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자신들만의 색깔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배성은 부총장은 SMR이나 스마트가 스포츠마케팅 연구를 위주로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머스트는 현장을 위주로 활동하는 동아리이기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각양각색 -

트렌드에 맞춰 개최하는 세미나

2014년 가장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바로 브라질 월드컵이었다. 작년 여름 머스트는 '월드컵 마케팅을 털어라'를 줄여

서 '월마트를 털어라'라는 주제로 네이버 스포츠 마케팅팀장과 함께 발대식 겸 첫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후 '스포츠를 Job 아라'라는 세미나를 열 때는 데상트 코리아에 입사한 선배와 IB월드와이드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강의를 문의하는 등, 필요한 곳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 장소의 경우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교에 협조를 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시 메인스폰서가 없었던 관계로 기타 비용의 경우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허 총장과 배 부총장은 추후 규모가 더 커지고 완성도도 더 높아지면 정식으로 스폰서십 체결을 알아 볼 생각이라고 한다.

가장 의미 있고 뜻 깊었던 '글로벌드컵'

작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묻자, 단연 '글로벌드컵'이라는 답변이 나

왔다. 글로벌드컵? 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먼저 물었다. 허영진 총장은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작년, 외국인과 소통하자는 의미와 월드컵 기간이 겹쳐 외국인 풋살대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또 저도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너무 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어요.”라며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만국 공통어인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스폰서십 유치도 머스트가 직접 스포츠토토에 기획서를 넣어 지원금을 받고 메인스폰서로 지정했다. 장소 대관은 어떻게 했을까?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내 에스빌드 풋살파크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황. 그러나 머스트의 간곡하고 끈기 있는 도전 끝에 장소 섭외는 성공했고, 참가선수 160명·응원단 50명에 이르는 대규모 풋살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홍보 및 대회도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었다. 배성은 부총장은 “결승전 때 경기가 격해지는 일이 있었어

요. 선수들이 어필을 하는데 심판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홍보를 위해 전 부서원이 학교별로 찾아가 홍보했던 기억도 나요!”며 작년 대회를 회상했다.

또한 그녀는 “그리고 오는 6월 6일 토요일에 수원월드컵 경기장 내 에스빌드 풋살파크에서 제 2회 글로벌드컵이 열려요! 올해는 작년보다 카메라도 많이 대여해서 중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통역을 해주실 분들도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며 애교 섞인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2014 스포츠 Job 페어 참가의 쾌거

글로벌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머스트는 동아리로는 유일하게 작년 스포츠 잡페어 참가자격을 얻었다. 배성은 부총장은 처음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 달리 당시 유행하던 ‘미생’으로 포지셔닝을 취하고 모의면접을 볼 수 있게 준 비한 머스트의 이벤트는 큰 성공을 거뒀다. 또한 배 부총장은 “잡 페어에 참가한



허영진 총장, 배성은 부총장

여러 기업이 머스트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인정을 받아 큰 의미가 있었어요.”고 덧붙였다.

롤 모델? 페이스북 같은 동아리가 되고 싶다

최종 발전상인 롤 모델에 대해서 물었다. 허영진 총장은 페이스북 같은 동아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하버드에서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하던 것이 상업화되어 세계인이 사용하는 SNS로 발전한 페이스북. 머스트 역시 경희대학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다가 연합동아리로 발전했기에, 글로벌한 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 * *

성경에 이런 글귀가 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 경희대학교 학생들로만 시작하여 불과 1년 만에 6개 학교 31명의 규모를 갖춘 당당한 동아리로 성장했다. 스포츠마케팅을 배워 이론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상상을 실무 현장에서 현실로 이뤄가고 있는 대학스포츠에 미친 마을 <M.U.S.T>. 이들의 미친 상상력이 어디까지 닿을지 기대된다.

글/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M.U.S.T 제공



2014 스포츠 잡 페어



2014 제1회 글로벌드컵

학생선수의 부모님이 바라본 대학스포츠클리그

대학배구 : 중부대 김동훈(어머니 박근옥), 대학농구 : 연세대 최준용(어머니 서효숙),
대학축구 : 선문대 김종우 & 상지대 김종석(아버지 김인곤)

경기장을 자주 찾는 팬들이라면 항상 경기장에 앉아 계신 익숙한 얼굴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심판들만큼이나 룰에 대해 잘 알고, 기자들만큼이나 스포츠에 대해 해박한 주인공들이 있다면? 바로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까지 자식들의 경기를 지켜보신 부모님들.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이기에 경기를 통해서만 자식을 볼 수 있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건넨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토록 애뜻한 만큼 선수들에게 있어 최고의 버팀목 또한 부모님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번 경기장을 찾는 부모님들은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뀐 대학리그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 따라서 이번 6월호 시사각각에서는 대학스포츠클리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을 담아보고자 한다.

* * *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며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 염려했다. 하지만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대학스포츠클리그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근 몇 년 동안 누구보다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대학스포츠클리그를 바라본 이들인 만큼 대답에는 진심 어린 의견이 녹아 있었다.

Q.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동훈 어머니(이하 박근옥) 아들 때문에 배구를 사랑하게 된 ‘중부대학교 세터 김동훈 선수’ 엄마 박근옥입니다.

김종우·김종석 아버지(이하 김인곤) 작년 선문대 재학 중 수원삼성에 입단한 김종우, 그리고 현재 상지대 축구선수 김종석 아빠 김인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준용 어머니(이하 서효숙)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농구선수 최준용 엄마 서효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평소에 대학스포츠클리그가 열릴 때면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응원하시는데, 중계로도 볼 수 있는 경기를 항상 와서 응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박근옥 시합장에 가서 시합을 볼 때마다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인곤 주위에 보면 부모가 경기장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피곤하시니까 오지 마시라’고하는 전화로 출발하셨냐고, 어디쯤 오셨냐고 하면서 은근 바라요.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오는 거죠.

서효숙 예전에 저도 한 번 준용이에게 물어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게임을 보러가는 것이 부담스럽니?”라고요. 그랬더니 준용이가 그러더군요. 관중석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그래서 게임이 있을 때면 어떻게든 보러 가려고 노력한답니다.

Q. 일반학생들과는 다르게 대학선수의 부모로서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A) 박근옥 저는 항상 부상이 염려됩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배구를 하는 거지만, 항상 안전함 속에서 경기를 치르길 바라죠.

김인곤 아이들이 클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프로문제, 군대문제 등.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머리 컸다고 보고 싶은데 집에 잘 안 오는 거요. 반성 좀 해야겠죠?(웃음)

서효숙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준용이가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바로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죠. 특히, 다쳤거나 많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요.

Q. 그럼 이렇게 경기장에서 밖에 잘 보지 못하는 아들과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박근옥 저는 동훈이랑 여행을 못 가봤네요. 시간이 주어된다면 여행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김인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하며,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데 피곤해서 쉬려고만 하는 게 아쉬워요.

서효숙 저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부비고 같이 놀 수 있게요. 특히 노래방은 꼭 가려고요.(웃음)

Q. 몇 년 간 대학스포츠클리그를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더 대학스포츠클리그의 운영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박근옥 좋아하는 배구를 자주 볼 수 있어 좋아요! 덕분에 아들얼굴도 보고요.(웃음) 아쉬운 점은 오심인 것 같아요. (프로는 오심에 대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 등이 있지만) 대학배구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인곤 일반 대회보다는 계획성 있게 리그를 준비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완할 점을 꼽자면, 리그 조 편성을 좀 더 다양화해서 수도권에만 쏠린 관심을 지방대도 받고 더욱더 다양한 팀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물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거리 문제 등을 함께 보완하면서요.

서효숙 프로에서도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가 대학리그만의 장점 아닐까요? 아쉬운 점은 대학스포츠클리그 기자단과 서포터즈들의 열정에 비해, 이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Q. 현재 대학스포츠클리그는 홈&어웨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박근옥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수업을 다하고 밤에 운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체력이 염려돼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때로는 몇 시간씩 차를 타야 해서 컨디션에도 영향이 갈 테고요. 아무래도 컨디션에 영향이 있으면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요?(웃음)

중부대 김동훈(어머니 박근옥)



김인곤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단 문제가 안 된다면 운동장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할 때 거리가 멀지 않다면 돈 들어 체육공원 빌리지 않고 상대 구장 사용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효숙 정말정말 잘 된 거죠. 대학리그는 말 그대로 대학생들의 리그이지 않아요. 각 학교에서 개최가 된다면 많은 홍보와 더불어 자신들의 학교를 응원하기 위해 학생들과 관중이 모여들 수 밖에요. 공부도 하고 수업시간이 아닐 때 열띠게 응원도하고!

Q. 현재 대학스포츠의 추세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즉,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5년도부터는 C학점 이상을 받아야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어요.)

A) 박근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은퇴 후 선수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김인곤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 대학생에겐 무리라 봅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말리그가 생긴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중학

연세대 최준용(어머니 서효숙)



교 공부 거의 안 한 아이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니까. 수업에 들어가 봐야 잠만 자고 면학 분위기 망칠 텐데요. 학생선수들이 제대로 수업 받은 시점의 학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효숙 대학리그 홈&어웨이 취지가 첫째로 그런 의미였잖아요. “공부하며 운동하기” 대학생의 본분으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농구선수들만이 아닌 일반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요.(웃음)

Q.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은 프로 진출을 목표로 삼고 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모든 선수들이 프로로 가지는 못하는데 대학스포츠 선수들의 드래프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박근옥 그러게요. 선택받은 선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요. 10년 넘게 배구만 해온 선수들에게 그들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길 바랍니다.

서효숙 대학에서 운동을 하다 1~2학년쯤 되면 공부나 운동이나가 거의 결정 나는 듯해요. 그래서 드래프트까지 나오는 많은 선수들이 프로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 감독님과

신문대 김종우 & 상지대 김중석(아버지 김인곤)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많이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Q.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스포츠 리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 박근옥 시합 중에 뜻하지 않은 부상자가 발생하면 빠른 응급조치가 가능했으면 해요. 큰 부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앰بول런스는 상시 대기하고, 들것이나 매트리스가 있었으면 해요. 아이들이 부상당하고 찬 바닥에 있는 것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김인곤 먼저 힘들게 여기까지 온 모든 선수들과 부모님들께 찬사를 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해서 지금 품고 있는 꿈을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덜 힘들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효숙 예전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만큼의 뜨거운 함성을 들을 수는 없더라도 대학스포츠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들이 동분서주하는 덕분에 차츰차츰 활성화되어가는 듯합니다. 대학농구가 살아나야만 이 땅에 프로농구가 살아납니다. 또 대학스포츠도요! 대학농구, 대학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 * *

매번 경기장에 찾아와 먼발치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던 부모님들이지만 이번 호에서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대학스포츠를 들어볼 수 있었다.

선수이기 전에 자식이기엔 선수들의 활약 하나하나에 웃고 우는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 가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눈빛과 더불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대학스포츠를 지켜보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긍정적인 변화에 박수쳐주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질책해주는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 대학스포츠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학생선수들의 부모님들은 그저 선수들만의 부모님이 아닌 대학스포츠의 부모님이다.

글/안미현(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임예람(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대학스포츠 블로그 DB(선수), 본인 제공(학부모)



스포츠 심리상담사

이현영 박사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무언가는 선수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바라보고 어떠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의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 * *

‘스포츠심리상담사’ 이제는 그리 생소하지 않은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수들의 ‘멘탈 코치’라는 말로 그들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츠인들의 머릿속에 뜬 물음표를 느낌표로 이끌어주고, 마침표를 찍어주는 스포츠심리상담사. 그들이 맡은 역할은 생각보다 막중하다.

깜깜한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 이끌어주는 등대처럼 선수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달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스포츠심리상담사 이현영 박사. 따뜻한 눈빛, 공감하는 고갯짓, 나긋한 목소리로 전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자.

“체육·운동·스포츠를 통해서 행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체육학을 전공하는 체육학도 시절 이현영 박사는 그저 체

육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행복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큰 꿈이 담겨 있었다. “체육·운동·스포츠를 통해서 행복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현영 박사는 이러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키워나갔고, 현재 그 꿈을 이루는 중이다.

스포츠인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심리상담사이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스포츠심리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이현영 박사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스포츠인들의 해우소 ‘심평체정(心平體正)’

스포츠인들이 신체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자원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설립된 그녀의 심리상담소 ‘심평체정’.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바로

게 한다'는 뜻을 가진 이 센터는 일반 심리 클리닉에서 근무를 했던 이현영 박사의 경험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그 기관의 사정이 생겨 상담할 공간이 없어졌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날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공간이 지금의 ‘심평체정’이 된 거죠.” 분명 ‘심평체정’이 설립되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현영 박사가 한 걸음 밖으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심평체정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 ‘용기’를 클라이언트가 주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두려움보다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약속이 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스포츠인들에게 ‘심평체정’은 근심을 털어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해우소와 같은 곳이 되었다.

하지만 이현영 박사는 아직도 나서서 홍보하거나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제한다. “상담이라는 영역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랑 상담하는 선수가 일정부분 성장해서 안 오게 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자주자주 오세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상담 받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달갑지 않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상담 받는 분이 부담 없이 조용히 다녀가 시라는 이현영 박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과학습이 필요하다!

[과학습(overlearning) : 충분한 수준을 넘는 학습]

심리상담사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선수들에게 안내하는 것들을 제 스스로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목표를 잡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스포츠심리 상담사는 자기관리 외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심리상담사 되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연수가 있는데 꽤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수련이 필요하고 해야 할 공부의 양도 많죠.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스포츠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따라서 심리학과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체육, 운동, 스포츠 철학·역사·사회학·법 등 공부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기 때문에 스포츠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이 쉽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또한 짧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 그녀의 꿈은 아직 진행 중

이현영 박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꿈이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 “최근에 비폭력대화와 평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현장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비폭력 대화를 소개하고 매뉴얼화해서 스포츠 분야에 잘 맞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종종 스포츠 뉴스에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몇몇 선수들이 있다. 때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 공격성이 그들의 무대 위에서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그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곳을 바라본다. “한국적인 스포츠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에 맞는 스포츠 심리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외국 선수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조금씩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이현영 박사의 꿈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녀의 꿈은 진행 중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스포츠 선수들은 강하다.”

이현영 박사는 선수들에게 자신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존재가 강한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못하면 약한 존재라, 미약한 존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강한 존재예요. 오랫동안 스스로 그 힘든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견뎌 왔죠. 전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강함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에요. 패배했다고, 기량이 안 늘고 있다고 다 내려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자신의 길이 보이고 자신의 강함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1부터 10까지 숫자로 보는 2015 전반기 대학스포츠

(05.23일자 기준)

1 승

성균관대의 1승이 간절하다. 성균관대는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가 개막한 3월부터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8연패에 빠져 있다. 성균관대의 남은 전반기 경기 상대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경희대와 상명대의 경기다. 반드시 연패를 끊어내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2 M

장신 센터 한양대 배구부 김재휘가 빼어난 활약으로 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올해 리그 8경기를 치르며 총 46개의 유효 블로킹을 기록 중인 그는 팀의 에이스 면모를 뽐냈다. 김재휘는 “한양대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3 대 1

성균관대는 2015 카페베네 대학축구 U리그 개막전에서 예원예술대를 3대 1로 따돌리며 설기현 감독의 지도자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설기현 성균관대 감독은 아직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해 벤치 대신 운동장 옆 건물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승리를 지켜봤다.

4 명

중부대 배구부 4명(함형진, 하승우, 박상준, 이지훈) 선수가 아시아U-23남자배구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우리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레프트 함형진, 세터 하승우, 센터 박상준, 리베로 이지훈 선수들은 각각 포지션이 달라 중부대 선수들의 다양한 활약상을 엿볼 수 있었다.

5 경기

연속 무패, 동국대가 개막전 패배 이후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 영흥체육공원에서 열린 2015 카페베네 U리그 4권역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3골을 연달아 넣으며 권역별 1위를 차지했다.



6연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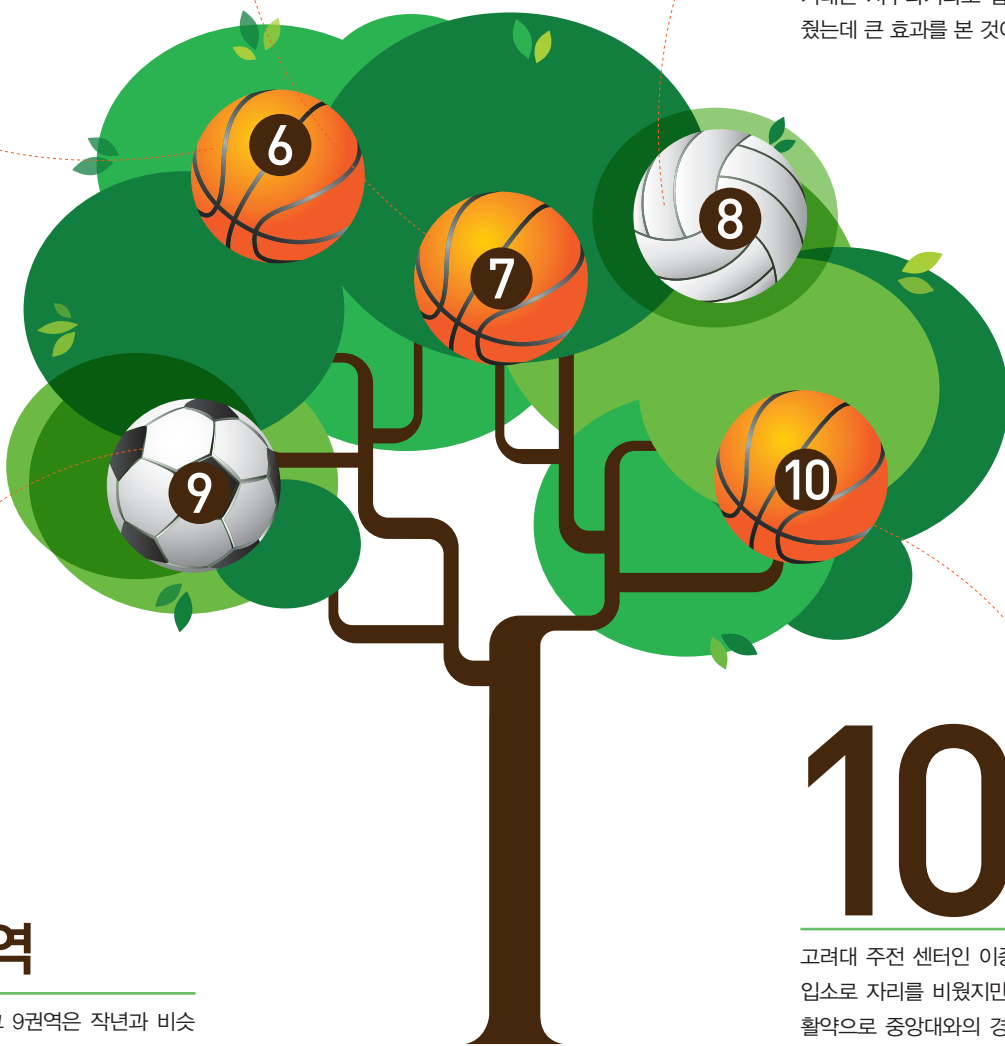
이번 시즌 단 1승만을 기록한 상명대가 6연패에 빠져있다. 지난 18일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에서 연세대와의 접전 끝에 65-76으로 상명대가 패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이날 상명대가 보여준 경기력은 실망이 아닌 희망을 볼 수 있었다.

7연승

용인대가 단국대를 이기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용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5남녀 대학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58-51로 단국대를 꺾으며 7연승을 달성했다. 용인대는 남은 2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전반기 전승을 달성하게 된다.

8연승

이상열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가 대학배구리그 개막 후 8연승을 달리고 있다. U-23 대표팀 발탁으로 자리를 비운 정동근의 공백과 박상훈의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화를 찾는데 큰 효과를 본 것이다.



9권역

2015 카페베네 U리그 9권역은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영남대가 단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동과학대와 울산대, 대구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대학부 경북대표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동과학대는 상승세를 이어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10연승

고려대 주전 센터인 이종현이 4주 군사훈련 입소로 자리를 비웠지만 강상재와 이동협이 활약으로 중앙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81-63으로 경기를 끝낸 고려대는 개막 10연승에 성공했으며 정규리그 전승 우승을 목표로 내세웠다.

2015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초읽기 진행

5월에 들어서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에서 실시하는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5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28일(화) 공고 발송과 함께 평가시스템 개방으로 시작되었으며 5월 31일(일)까지 각 대학의 평가 항목 입력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이 진행되었다.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은 대학운동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USF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 대학운동부 중점육성종목 지원사업보다 확대된 40억의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100개 내외 대학에 훈련비 및 훈련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각 대학에서 입력한 평가 항목은 6월 중 1차(정량)와 2차(정성)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대상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 관련 상세 사항 및 추후 진행 절차는 KUSF 홈페이지(www.kus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USF 대학생 기자단, 대학스포츠 언론 유일팀으로 2015 UnivExpo 참가



KUSF 대학생 기자단이 지난 5월 2일(토)과 3일(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진행되는 2015 UnivExpo Seoul(이하 유니브엑스포)에 참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유니브엑스포에 KUSF 대학생 기자단은 2회부터 꾸준히 참가해왔으며 매년 대학스포츠 관련 흥미로운 콘텐츠로 대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 KUSF 기자단은 이 전부터 큰 관심을 자아냈던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 및 유니폼 착용 사진 촬영 이벤트, 꽃미남 투

표 이벤트 등과 함께 대학스포츠 관련 스물게임(야구·농구·축구)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꽃미남 투표 이벤트는 선수만이 아닌 대학스포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꽃보다 중년’이라는 이색 투표를 추가해 재미를 더했다. 또한 스물게임을 통해 유니브엑스포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대학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 지역권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유니브엑스포에는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과 만나다’라는 부제에 맞게 동아리, 기업, 정부 단체 등 총 100여 개의 팀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발단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관련기사 : [대학스포츠 in 2015 Univ Expo] http://kusf_sport.blog.me/220351010981



이달의 주/요/일/정

-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시행
- KUSF 대학생 기자단 제9기 모집
- 2015 대학농구리그 올스타전

일시 6월 9일(화) 13:00 여자 올스타전 15:00 남자 올스타전

장소 광주 동강대학교 체육관(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농구 메인 경기장)

KUSF 대학스포츠
웹진 6월호

취재
후일담



이번 리그 소식을 쓰면서 벌써 예선 리그가 끝났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네요. 새해에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리그만큼은 항상 떨어지지 않은 존재로 함께했던 것 같아요! ^^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대학스포츠! 그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호 스포트라이트에는 유도 명문 한양대학교 유도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든든한 풍채만큼이나 다부진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대스협과 깊은 인연이 있는 팀이더라고요! 한국 대학의 모든 스포츠 팀들이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으로 뚫뚫 뚫쳐 거친 장애물도 모두 격파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한편 대학배구리그 예선리그가 벌써 끝이 났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순위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인터리그에는 반전의 묘미가 여기저기 숨어있답니다!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o^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호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스포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선수들을 응원하시던 그분들을.. 드디어 주인공으로 인터뷰하게 되어 참 뿌듯하고 또 잘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_<

안미현(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인터뷰로 인해 서울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 보니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얘기를 나눠본 이요한 선수는 배울 점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동력을 얻은 이요한 선수를 응원하게 되고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